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제안 “초 1부터 학교서 영어교육을”에 대한 비판 논평 (2024.01.09.)

## 조희연 교육감님, 현재의 ‘초1·2학년 영어교육 금지’ 합헌 결정의 이유를 다시 헤아리길 바랍니다.

The JoongAng

2024년 01월 08일 월요일 016면 종합

서울·경기교육감에 교육정책 묻다

### 조희연 “초1부터 학교서 영어교육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사진)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중앙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정현·김현동 기자

### 임태희 “학생인권조례 없애선 안돼”

새해를 맞아 진보·보수 진영의 대표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지난달 중앙일보가 각각 만났다. 직선제가 도입된 2014년 7월 지방선거 이후 교육정책은 진영 논리와 뒤섞여 좌충우돌했지만 두 교육감은 진영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비전을 찾고 있었다.

조 교육감은 “영어 정규 교육과정을 초등 1학년으로 앞당기자”는 파격 제안을 했다.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조장을

#### 조희연 서울교육감

초3부터 가르쳐 영어 공교육에 공백 학생·학부모들 사교육하게 만들어 대학입시엔 논·서술평가 도입을

#### 임태희 경기교육감

중학생 때 악보 못 외웠다고 매맞아 학생 존중 위해 인권조례는 필요 수능 궁극적으론 절대평가 전환을

적극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궁극적으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고교학점제 취지가 구현될 수 있다.”

- 교부금을 저출산 대책에 쓰자는 주장이 있는데,

임=“올해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3.8% 감소한 15조7673억원이다.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AI 기반 교수학습플랫폼사업 등을 위한 기금을 적립 중인데 이걸 도의회에서 급할 때 꺼내

지난 2023년 1월 8일(월) 중앙일보에 서울·경기 교육청 조희연(서울)·임태희(경기) 교육감의 신년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2023년 교육계 안팎으로 논쟁이 일었던 2028 대입개편,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 등 다소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해당 보도 중 언급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초등학교 1·2학년으로의 영어 교육 하향 제안’에 우려를 표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는 “초1부터 학교서 영어교육을”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아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보도의 헤드라인에는 “**영어 정규 교육 과정을 초등 1학년으로 앞당기자**”라는 조희연 교육감의 “파격제안”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제안의 배경에 대해 초등 1·2학년의 영어 공교육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초등 입학 이후 공교육이 부재하여 사교육을 촉진하는 아이러니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은 초등 영어 정규교육과정의 하향 확대가 빈곤계층과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이러한 방안이 지역 간 영어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초등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비전’일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유초등 사교육 경감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불일치하여 당혹감을 느끼게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제안은, ① 2016년 초등 12학년 영어수업 금지 조치에 대한 현재의 합헌 결정의 이유와 모순됩니다. ② 연구자들로부터 제기된 조기 영어교육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어떠한 설명이나 대안 제시도 없습니다. ③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하려는 대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던 전철을 밟게 될까 우려됩니다.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소재 한 사립 초등학교가 정부의 ‘초등 1-2학년 영어과목 개설에 대한 금지 정책’에 불만을 품고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사립초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학년의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합헌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2016년 2월).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저학년은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하므로, (중략)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재는 교육부의 초등 1·2학년의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며 “해당 시기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재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초등 저학년 영어 교육과정 도입이 가져올 ‘사교육 시장 과열’이라는 외재적 효과와 함께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올바른 모국어 습득이라는 교육의 내재적 측면을 두루 고려한 것입니다.

영어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지만, 많은 영어교육 연구자들이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는 “결국 일상에서 영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외국어 환경에서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는 크지 않으며, 영어와 같은 외국어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잘 배운다는 결론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병민, 초등학교 저학년 및 입학 전 아동의 방과후 영어교육 폐지를 둘러싼 조기 영어교육 진단과 대안. 2018)

만약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이 진지한 교육적 고심 끝에 나왔다면, 현재가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금지 합헌 결정의 문제점 지적, 8-9세의 아동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적 당위성과 해당 학령의 어린이가 가져야 할 영어교과의 성취 수준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차수 등의 규모는 얼마인지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인터뷰의 행간을 반복해 읽어보아도 초등 1·2학년 영어 교과 도입의 교육적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짧은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단지 2년의 영어교육의 공백을 메우는 것과 농어촌과 대도시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것입니까? 단지 정의적 차원에서 영어에 관심과 흥미 정도를 갖도록 하는 수업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해당 연령 및 그 이하 학생들의 영어교육 필요성을 부각하고 학부모의 걱정을 자극할 뿐,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으로 인해 사교육에 대한 갈증만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결국 2016년에 헌법재판소가 밝힌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의 중요한 목표인 전인성과 학생들의 초등학교생활 적응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 범람을 막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바꾸어 공교육 과정에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정책은 역설적으로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교육 근절 대책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 사교육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서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329개, 전년대비 18곳이 늘었으며, 월교습비도 대학 등록금의 2~4.7배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2023년 사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원

아를 선발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전국에 144곳(전체 17.0%)이나 운영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영유아과 초3을 잇는 영어교육과정이 도입의 필요성이 아닌,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조기 영어몰입교육의 관리 감독 대책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2023 관련 보도자료 보기

☞ 서울 유아대상 영어학원 329개, 전년대비 무려 18곳 늘어나고, 고액비용 문제 심각해...(2023.10.11.)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573059&t=board&category=726p36918L>

☞ 4세 고시, 입학전 레벨테스트 통해 원아 선발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국 144곳...(2023.10.12.)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573091&t=board&category=726p36918L>

사립 초등학교가 집중된 서울시 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등1·2학년 영어 교육 확대가 가져올 파장은 더욱 크고 중대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의 공백을 어설피 메꾸려 하기 보다는 교육 불평등과 특권교육 트랙으로 이어지는 영유아 영어 사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기존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 정규수업에서 책임교육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정책적 설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에 초등 영어교육 확대 방침에 대한 재고를 요구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아와 초등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건강한 학교생활 정착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을 기대하며 이를 위한 노력에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며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2024. 1. 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백병환 연구원 (02-797-4044, 내선 504)